

새학기 마스크 자율... 학부모 고민 '대조'

저학년 학부모 "코로나19 감염·사회성 떨어질까 우려" 고학년 "3년동안 마스크 착용...친구얼굴 몰라 안타까워"

"아이가 3월 2일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마스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생활 3년동안 한번도 마스크를 벗지 않아 친구 얼굴을 몰라 안타까웠어"

2023학년도 새학기부터 마스크 없이 등교가 가능해짐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는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하는 반면 고학년의 경우 기대감을 보여 대조적이다.

26일 광주와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 이후 3년만에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이 해제된 이후 처음 맞는 3월 새학기부터는 초·중·고 학생들은 대면수업 하며 마스크 착용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권고했다.

등교를 앞두고 실시했던 발열검사 및 급식실 칸막이도 해제한 반면 접촉이 빈번한 시설과 기구에 대한 청소·소독, 식사시간 창문 상시 개방 등의 조치 등이 강화됐다.

통학버스·시내버스,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음악 수업 등 좁은 공간에서 많은 학생이 모이는 수업과 행사의 경우 의무 착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교실과 복도, 운동장, 급식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게 됐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 선택

으로 바뀐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 앞둔 학부모들의 고민은 가중됐다.

남구의 한 초등학교 입학생 학부모 A씨는 "아이가 코로나19에 한번 감염돼 고열로 고생을 했던 경험이 있어 마스크를 착용시키고 싶다"며 "그런데 답답해 하고 사회성이 떨어질 것 같아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학부모 B씨는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주변의 학부모들에게 물어보는데도 사정은 똑같았다"며 "저학년들은 의무적으로 착용시켰으면 한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반면 예비 4학년 학부모 C씨는 "아

이가 입학 때부터 3학년 마칠때까지 학교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아 친구 얼굴도 제대로 모르고 공부하고 급식 먹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어 안타까웠다"며 "4학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하니 기뻐하면서 좋아해 마스크 목걸이를 걸어 줄 생각이다"고 말했다.

6학년 학부모 D씨는 "아이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의견을 물었는데 치아 교정기에 마스크가 끼니까 불편하다고 벗고 싶어 했다"며 "가방에 넣어두고 학교에서는 착용 안하겠다고 의사표시 해 그렇게 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광주지역 0-19세 확진자는 각각 92명, 114명, 96명, 92명, 40명, 70명, 104명, 103명이다.

서선욱기자



광주전남지방방무청, 2023년도 상반기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광주전남지방방무청(청장 김용무)은 지난 23일 지방방무청 회의실에서 정책자문위원회를 초청, 2023년도 상반기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김재환기자



완도해경, 지휘관 참관 구조대 현장 훈련 실시

완도해경경찰서(서장 박기정)는 지난 23일 최일선 현장대응 부서 완도구조대 방문, 직무능력 및 구조·구급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교육 훈련을 참관했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담양소방, 전통시장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교육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 기간 소화기 및 비상소화장치 일제 점검·사용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광주 동부소방, 주거용 비닐하우스 현장대응훈련 실시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송민영)는 지난 24일 오후 2시 동구 선교동 주거용 비닐하우스를 대상으로 현장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여수소방, 2023년 상반기 직장교육 실시

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는 24일 여수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상반기 직장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



무안경찰, 치안종합성과 보고회 개최

무안경찰서(서장 김정환)는 24일 '안심 구역 무안 만들기'라는 주제로, 치안만족도 향상 방안 및 주요 추진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2023년 치안만족도 향상을 위한 치안종합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무안=이기성기자

"화장장 허가 내줄게요" 업자 속여 수익원 챙긴 전 고흥군청 직원 징역형

법원 "공무원과 건설업자가 화장장 사업자에게 수십차례 금품 수수"

고흥군에 화장장을 허가해 줄 것처럼 속여 수익 원의 금품을 건네받은 전 고흥군청 공무원과 건설업자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관리법 위반, 금품수수)과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고흥군청 공무원 A(66)씨와 건설업자 B(7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억 3000만 원·1억 8000만 원을, 추징금 1억 4180만 원·440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화장장 설치를 목적으

로 금품을 제공한 사업자 C(67)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C씨로부터 화장시설을 허가해줄 것처럼 속이고 수십차례에 걸쳐 총 2억 163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화장장 사업자 C씨에게 고흥군청 행정과장(5급)인 A씨를 소개해주면서 "군에서 실제로 통한다. 군수의 오른팔이다. 과장님을 통과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며 C씨를 기망해 금품을 요구하고 받아 챙겼다.

A씨와 B씨는 "군수님이 1억 원을 요구한다", "급한 일이 있으니 남에게 말하지 말고 1000만 원을 가지고 고흥읍장실로 빨리 오라"는 등의

방법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C씨에게 금품을 건네받았다.

이들은 화장시설을 허가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모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C씨는 2021년 7월~2022년 6월께 펜션 부지 조성을 위해 군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임야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거나 혹은 단독으로 C씨를 기망해 지속적으로 금품을 수수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는 공무원 직무의 불기매수성 및 공정성,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시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B씨는 변호사법 위반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

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C씨가 부당한 이익을 얻은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뇌물을 공여해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A씨는 전과가 없고 B씨에 의해 범행 등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C씨는 부당한 방법을 통해 화장시설의 허가를 받기 위해 뇌물을 공여하는 한편,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산지 전용 및 개발행위를 함으로써 임야를 훼손했다"며 "산지관리법 위반 등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고흥=기동취재본부

"유아인, 1년 간 프로포폴 73회 투약"...경찰, 식약처 기록 확보

한달에 프로포폴 6번 투약한 꼴

마약류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임홍식)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1년에 70회 넘게 투약했다는 기록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씨가 지난 2021년 1월4일부터 같은 해 12월23일까지 총 7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함께 투약량이 4400mg가 넘는다는 내용의 기록을 남겨받았다.'

식약처가 지난 2020년 9월 발표한 '의약품 마약류 프로포폴의 적정 사

용·처방을 위한 안전사용 기준'에 따르면 간단한 시술 목적이라면 프로포폴 투약 회수는 월 1회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남용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씨는 단순 계산해도 한 달에 6번 꼴로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것이다. 경찰은 이같은 내용을 유씨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에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씨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지난 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하는 유씨의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국과수에 소변과 모발 정밀감정을 의

뢰했다. 이후 국과수로부터 소변과 모발에서 대마·프로포폴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통보를 받은 바 있다.

경찰은 유씨에게 반복적으로 프로포폴을 처방해준 것으로 의심되는 병의원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경찰은 유씨에 대한 국과수의 정밀검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조만간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상습 투약 여부 및 투약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프로포폴은 빠르게 단시간 동안 작용하는 정맥으로 투여되는 전신마취제로, 수술이나 검사 시 마취를 위해 사용되거나 인공호흡기를 사용

하는 환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사용 목적, 환자 상태에 따라 투여 용량은 달라진다. 하얀색 액체 형태로 돼 '유유주사'로도 불리며, 다른 마취제와 달리 빠르게 회복되고 부작용이 적어 오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뉴스



봄 날들이 맑은 날씨를 보이는 26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천지연폭포를 찾은 관광객들이 돌다리를 건너고 있다.

김재환기자